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28일 백령도를 방문했다. /인천시청

인천시장, 백령도 방문… 소통의 시간 가져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28일 백령도를 방문해 천안함 위령탑에서 헌화와 분향으로 46용사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며 넋을 위로했다.

또한 불철주야 서해5도 접경지역 안보수호를 위해 고생하는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 군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안보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어 백령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의 현장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최근 남북화해분위기 하에 서해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해 서해5도가 평화의 바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남북공동어로 좋지만 어장 확장부터"

서해5도 어민들, 인천시에 건의
인천시장 "군사적 부분 검토돼야"

서해5도 어민들이 남북 공동어로수역 지정·운영에 앞서 어장 확대부터 허용해 달라고 인천시에 건의했다.

어민들은 이달 28~29일 백령·대청·소청도를 방문한 박남춘 인천시장과의 간담회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합의서를 보면 남북 평화수역을 조성하고 공동어로수역을 시범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어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어민들은 그러나 평화수역 조성과 공동어로수역 운영이 실제로 이행되기까지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먼저 서해5도 주변 어장 확대부터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장태헌 백령선주협회장은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11월 1일부터는 당장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북 간에 일체의 적대행위가 중단되는 만큼 그에 맞춰서 주변 어장부터 확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어민들의 요구"라며 "소청도 남단 어장하고 연평도 어장을 연결하고 주변 어장을 확장하는 문제를 시장이 관심을 갖고 좀 빠르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에 "서해5도 어민들만 보면 해 드리고 싶지만, 군사적으로 여러 부분이 검토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동어로수역 등을 논의할 때 중요한 의제로 제기해 주길 바라고, 인천시도 서해5도 어민을 포함해 민관협의체를 꾸려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해5도 주민들은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에서 추진 중인 백령공항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심효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은 "백령공항 건설공사를 2020년 시작해 2025~2028년 완공하려는 애초 계획이 성사될 수 있는지, 백령공항에 오는 항공기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중 어디서 출발하는지, 50인승 비행기가 하루에 몇 회나 운항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박 시장은 "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섣불리 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50인승은 너무 작지 않은지, 운항 항공기 규모가 계획보다 커진다면 활주로의 폭과 길이도 확대해야 하는 건 아닌지 등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metroseoul.co.kr

롯데백화점광주점, 올 겨울 롱패딩 선봬

롯데백화점광주점이 30일 6층 노스페이스 매장에서 가장 가벼운 롱다운 점퍼를 선보였다. 에어 롱다운 점퍼는 거위솜털 80% 거위깃털 20%로 경량성, 보온성, 방수까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밑단에 옆트임 및 신축성 있어 활동에 편함을 준다. 상품가격은 42만9000원.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10월14일까지) 동안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시 북구, 동강대와 일자리 창출 나서

광주시 북구가 관·학 역량 결집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광주 북구는 오는 4일 2층 상황실에서 지역 내 연구 중심의 교육기관인 동강대학교와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훈련, 취업 연계 및 창업 컨설팅 등 상호협력 지원체계 구축으로 청년창업 지원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지역산업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시책을 발굴·추진하는 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산·학·연·관 구인처 발굴 및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동강대학교에서는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지원과 함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새롭게 발굴·추진한다.

아울러 관·학이 연계된 개방·협력형 네크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육성 프로그램 등 관련 정보를 공유·교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한 청년창업지원모델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광주=봉채영 기자

광주 동구서 '추억의 충장축제' 5일 개막

9일까지 5일간 거리에서 펼쳐
축제의 꽃 '퍼레이드' 6일 열려

지난해 제 14화 추억의 충장축제 모습.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추억의 충장축제'가 '추억, 세대 공감!'을 주제로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지난 2004년 도심공동화 극복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도시재생을 위해 시작된 충장축제는 '추억과 낭만'을 소재로 전국을 대표하는 거리문화예술축제로 훌륭히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수정계획이 발표되고 동명동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충장축제가 지역민들의 신명나는 놀이한마당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올해 축제의 세대공감 소재는 서커스와 청바지로 정해졌다. 메인 콘셉트인 서커스는 개막식을 비롯한 축제 전반에 도입돼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특히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동춘서커스단을 초청해 화려한 공연을 펼친다. 동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광저우시 월수구 기예단의 초청공연도 마련돼 있다.

또 젊음과 자유의 상징인 청바지를 축제의 드레스코드로 정착시키기 위한 참여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돼 관람객들이 축제장에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축제 개막식은 10월 5일 저녁7시 5·18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추억의 마술쇼, 충장서커스 매직유랑단, 변검공연 등에 이어 김현정·현진영·김정민 등 추억의 라인업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축제의 꽃 '충장퍼레이드'는 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수창초교에서 ACC 초입까지 1.6㎞에 걸쳐 서커스 퍼레이드, 마칭밴드, 치어리딩 등의 역동적인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올해는 특히 브라질 리우, 이탈리아 베네치아, 프랑스 니스 등 세계 3대 퍼레이드를 재현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충장로 4·5가에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춘문화존'이 들어선다. 지역 상인들과 함께하는 일일호프를 비롯해 청년음악가 공연, 플리마켓 등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기간 중 구시청 일원에서는 아시아푸드페스티벌이 진행된다. 다양한 문화공연은 물론 중국·일본·태국·대만 등 아시아 각국의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기회다.

이밖에 충장달빛캠핑, 대학가요제 리턴즈 경연, G-POP 페스티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 등 6개 분야 31개 프로그램이 5일 동안 알차게 펼쳐진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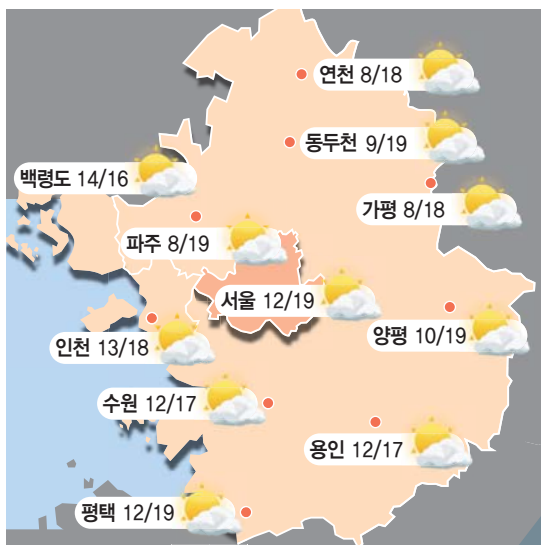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27 | 해짐 / 18:16

10월 1일 (月)
음력 : 8월 22일

수도권 날씨
12~1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호남 대표 필암서원 문화체험의 장으로

1박2일 선비문화체험에 참여한 학생들.

호남의 대표 서원 필암서원(사적 제242호)이 선비 문화 체험의 장으로 살아난다.

장성군은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청렴, 절의, 의기 찾아 떠나는 선비문화 체험여행'(이하 '선비문화 체험')이 문화재청 주관 '2019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선정되면서 5년 연속 추진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선비문화 체험은 장성의 대표 문화재인 필암서원(사적 제242호), 장성향교(도 기념물 제105호), 고산서원(도 기념물 제63호), 봉암서원(도 기념물 제54호)을 활용해 청소년에게 유교 문화와 선조의 지혜를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1000여명이 참여했다.

선비문화 체험은 ▲1박2일 선비 문화 체험 여행 ▲문화의 날 풍류여행 ▲문화유산교육사 양성 ▲선비문화 체험학교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기초적인 예절교육부터 전통 공연, 인문학 특강까지 다양하게 짜여져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